

PHOTO ESSAY

사진산책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심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Window Side Please! 비행기를 타면 항상 창가에 앉는다. 상공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나를 크게 매료한다. 비행기의 작은 창을 통해 바라본 구름과 땅, 바다는 마치 꿈속 세상처럼 느껴진다. 그런 환상적인 세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현실로 가져오는 것을 좋아한다. 요즘엔 사진 찍기 좋은 꼬리날개 쪽 창가 자리에 앉으려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기꺼이 감수하며 창가 자리를 고집한다. 장시간 비행에 따른 생리현상에 대비해 탑승 몇 시간 전부터 수분 흡수를 자제하면서까지 말이다.

이호준 Lee, Ho-Joon · 언론학박사·포토에세이스트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다섯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